http://dx.doi.org/10.5392/JKCA.2016.16.06.215

국내 서커스 교육 사례연구
-서울문화재단 주최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Circus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Circus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by Seoul Foundation Arts and Culture

전아람, 김형남, 정연수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Aram Jun(vjun77781@naver.com), Hyung Nam Kim(knam414@hanmail.net),
Yeun Soo Chung(udanza@nate.com)

요약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국내 서커스 교육 사례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로 국내 서커스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국내와 해외 교육과정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 국내 서커스 교육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국내와 해외 과정을 모두 수료한 3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점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국내 프로그램에서 점핑업을 위한 목표설정을 하였고 움직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커스 세상에서 맞볼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을 하였고 다시 가고 싶은 갈망을 나타냈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가자들의 고민은 연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의 부재와 다음 단계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아 이제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국내 서커스가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의견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서커스 교육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국가기관 및 교육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서커스 전문교육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를 바란다.

■ 중심어 : | 서커스 |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서울문화재단 |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ircus education in Korea by the case study of Circus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which was held by Seoul Foundation Arts and Cultur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study was conducted via interviews of three participants who completed Circus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to comprehend their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the programs in Korea and Franc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set their goals to jump up, and expand their movements through the program that was held in Korea. Experiencing the great cirus world in France, they showed eagerness to go back and get more training. Despite of these positive effects, they have faced a difficulty how to continue their leaning and goals for the circus in the absence of circus facilities and places to practice. The system that they can take the next step is not ready yet, either. There should be som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order to develop the circus education, they hoped that Seoul Foundation Arts and Culture continues circus education with consistency. In addition to that, many national and circus educ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activated to establish the circus professional educational system.

■ keyword : | Circus | Circus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 Seoul Foundation Arts and Culture |

접수일자 : 2016년 02월 02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18일
교신저자 : 김형남, e-mail : knam414@hanmail.net

I. 서 론

1. 연구목적

“나는 춤에 늦게 입문하여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특히 현대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창작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도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에 다양한 장르의 움직임을 배워서 접목해보고 싶었다. 이러한 이유로 스트릿 댄스, 재즈댄스, 탭댄스, 스포츠 댄스, 아크로바틱 등 여러 장르의 춤을 접하면서 내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활동 연장선으로 뮤지컬을 통해 서커스 분야를 접하게 되었고 에어리얼 실크(aerial silk), 에어리얼 후프(aerial hoop) 및 와이어(wire) 공연을 하게 되었다. 움직임의 영역을 창의적으로 확장시켜주고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움직임은 나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 공연들을 실제로 관람하고 공연 영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움직임의 끝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계속 발전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예술적이고 경이로웠다. 나는 2년간의 다양한 종류의 서커스 훈련과 공연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최상의 움직임의 경지를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그 방법은 전문적인 교육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나의 일지, 2014.11.10).

현재 무용, 연극, 영상, 미술, 서커스 등의 다양한 장르의 무대예술이 융합된 퍼포먼스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공연계 흐름 속에서 서커스의 움직임은 고도의 기술적 곡예로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장르이다. 이 장르는 연극, 무용 등 타 장르에서 움직임을 확장시키며 무용작품의 좋은 한 예로는 2015년 10월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된 데보라 콜커 <MIX>에서 서커스를 도입하여 더 풍부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창출하였다. 여러 해외 유명한 무용 작품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해외기관에서는 움직임 영역의 확장을 위해 국가의 지원과 서커스 학교, 센터 등의 체계적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많은 서커스 전문가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 학교로는 캐나다 국립서커스 학교, 호주 국립서커스 학교,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CNAC)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가 태양의 서커스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전문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몬트리올 라토후에 세운 캐나다 국립서커스 학교에서는 학업과 서커스 전문기술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고, 중·고 과정 5년, 전문대 과정 3년의 총 8년의 학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졸업 학력이 공식 인정되고, 졸업생의 90%는 '태양의 서커스' 등 세계적 공연단에 취업한다[1]. 이와 같이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호주 국립서커스예술학교(National Institute for Circus Art, NICA)는 3년의 학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주로 서커스 오즈 단체나 태양의 서커스에 취업을 한다[2]. 실기 중심의 서커스 교육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직업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3대 서커스 학교로 손꼽히는 CNAC는 서커스 전문인으로서 활동하려면 3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며 단계별로 나누어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3]. 미국에 유명한 서커스 센터들로는 샌카(SANCA), 샌프란시스코 서커스 센터(SF Circus Center), 네카(Necca), 서커스 웨어하우스(Circus Warehouse) 등이 있으며 소수의 인원으로 실력있는 강사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샌프란시스코 서커스 센터(SF Circus Center)에서 경험했을 때 기초적인 움직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을 연마할 수 있고 경력이 많은 강사진들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해외의 전문적인 서커스 환경과 교육과는 달리 국내는 대중들의 무관심과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고 아카데믹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서커스 교육시스템 부재 속에 서울시 산하기구인 서울문화재단에서 2015년도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국내 서커스 교육 프로그램의 시발이 되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을 기점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커스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고자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2015년도 6월부터 총 6개월간 진행하였다[4]. 국내에서는 4주간의 기본과정과 오디션을 통해 8명을 선발하여 2주간의 심

화과정과 2주간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후에는 프랑스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1주간의 프랑스 서커스 축제 관람과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에서의 3주간의 신체 워크숍 과정으로 구성되었다[4].

이러한 전문적인 서커스 교육 관련 선행 연구물이 매우 미비하여 학술적인 연구물 대신 서커스 양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사, 해외 서커스 학교와 센터 사이트, 그리고 서커스에 관련된 연구물을 참고하였다. 서커스에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로는 태양의 서커스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았다. 무용학 관점에서 심영임(2010)은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무용의 예술적 의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태양의 서커스 작품에서 무용적 요소를 발견함으로써 무용의 예술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5]. 정의숙, 변혁(2014)은춤 영역 확장을 위한 태양의 서커스 컨텐츠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태양의 서커스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와 무대기술,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움직임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무용 작품들과 함께 논의하여 춤 장르 안에서의 콘텐츠 확장을 하고자하였다[6]. 경영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전성찬(2007)의 태양의 서커스의 블루오션전략이라는 주제로 연극적 구성의 가치혁신, 표현전달의 가치혁신, 디자인과 기술의 가치혁신, 공연장과 미디어 영상으로의 가치혁신 요소들에 중점을 두었다[7]. 김영아(2011)의 가치혁신으로 본 태양의 서커스와 우리나라 서커스의 향후 과제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태양의 서커스의 전략과 시스템을 국내 서커스 환경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태양의 서커스를 다룬 논문들은 연극, 음악, 경영학적인 분석 등 예술에 대한 관점부터 마케팅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8].

하지만 국내에 아카데믹하고 체계적인 서커스의 교육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국내 서커스 교육 사례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로 국내 서커스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국내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국내교육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의 해외교육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 지향점은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인터뷰, 참여관찰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자료의 내용들이 병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각검증법, 동료검증, 연구 참여자의 검증이 사용되었다.

3.1 연구 참여자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국내과정과 해외연수 과정까지 수료한 8명 중 남자 1명, 여자 2명, 총 3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전체 교육과정을 진행한 주최 측 관계자를 통해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이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자세로 임했던 참여자들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대한 정보

이름 이니셜	성별	나이	전공	직업
GER	여	30	연극(학부) 현대무용(석사)	거리예술퍼포머, 대학원생
GMJ	여	28	전동연희 장구(학사)	전통연희 창작 그룹 노니 멤버
GSW	남	31	연극연출(학부)	아동극 뮤지컬 배우, 뮤지컬 점퍼즈 예술단 운영자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과 본 연구자가 핸드밸런싱 보조 강사로 참여하여 관찰함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사례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별 분석은 먼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중요한 주제들을 발견한다. 그 주제를 바탕으로 다시 자료들을 검토하여 반복되거나 서로 연관

된 소주제들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중심개념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축약하고 주제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연구자의 해석을 사용한다[9].

4. 국내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과정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커스 전문인을 양성하여 국내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의 참가자들은 무용, 전통연희, 거리예술, 아크로바틱, 마샬아츠, 파크루 등의 공연 경험이 있는 공연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 20명을 선발하였다[4]. 국내 기초와 심화 과정에는 3명의 해외 서커스 전문가들과 2명의 국내 최고의 서커스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에서 해외 연수에서 소요되는 소액의 체류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하였다.

국내 프로그램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기초과정은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타이트 와이어(Tightwire) 및 슬랙라인(Slackline), 차이니스폴(Chinese Pole), 핸드밸런싱(Hand Balancing) 및 핸드 투 핸드(Hand to Hand) 순으로 진행하였다. 타이트 와이어와 슬랙라인 수업은 프랑스 서커스 전문가 줄리앙 켄와 탕(Kenwa Tang)이 2주간 지도하였다. 타이트 와이어와 슬랙라인은 '줄타기'로 가는 철사나 로프 위에서 걷거나 점프하는 등으로 행해지는 곡예이다[10]. 이 수업에서는 앞, 뒤로 걷기, 한 발로 균형잡기, 발 바꿔 앞, 뒤로 슬라이딩하며 가기, 무릎 굽혀 앉기 등의 기술들을 익혔다.

차이니스폴 수업은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CNAC) 출신인 에르완 하균 라르세(Erwan HaKyoon Larcher) 지도 아래 5일간 진행되었다. 차이니스폴이란 중국 서커스에서 유래된 곡예로 대개 나무로 된 봉이나 대나무를 사용하며 오르내리기, 떨어지는 기술, 아크로바틱 움직임을 적용한다[10]. 수업내용으로는 한 다리 걸고 버티기, 올라가는 다양한 방법들, 거꾸로 매달리기, 떨어지기 위한 자세 등을 단계적으로 익혀나갔다.

핸드밸런싱 및 핸드 투 핸드 수업은 프랑스에서 서커스를 전공한 석채완 국내강사가 5일간 지도하였다. 핸드밸런싱이란 바닥 혹은 기구에 한 손으로 의지한 채 균형과 힘을 보여주는 곡예이다[11]. 이런 고도의 기술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물구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핸드밸런싱으로 가기 위한 물구나무서기 동작들을 훈련하였다. 핸드 투 핸드(hand to hand)는 대개 한 명이 누워있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두 명이 손을 맞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인체의 곡선과 힘을 이용한 곡예이다[11]. 핸드밸런싱 수업은 물구나무를 설 수 있는 단계별 훈련, 벽과 큐브를 이용한 훈련, 2인 1조로 훈련 등으로 진행되었다. 핸드 투 핸드는 두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먼저 습득한 후, 중 고급 동작인 여자들이 남자 어깨 위에 서는 방법들을 익혔다.

기초과정을 이수한 총 15명의 참여자들 중 오디션을 통해 8명을 선발하여 심화과정을 진행하였다. 심화과정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오전에는 파쿠르, 오후에는 아크로바틱&밸런싱, 전통연희 수업으로 하루에 6시간씩 진행하였다. 파쿠르란 도시와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훈련으로 수업은 국내 파크루의 1인자 김진호 강사가 진행하였다[12]. 수업내용은 체력 훈련을 목적으로 언덕을 뛰어올라갔다 네 발로 내려오기, 야외 구조물들을 점프하고 뛰어넘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1주차 오후 수업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한울림예술단 수석인 소경진 강사가 기초적인 전통 연희 움직임을 가르쳤다. 전통연희란 근현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전문적인 연희자들에 의해 전승되던 줄타기·솟대타기·땅재주·환술 등 산악·백희의 종목들과 가면극·판소리·창극 등 연극적 양식의 종목들의 공연물이다[12]. 수업내용은 상모돌리기, 버나 돌리기, 12발 돌리기, 자반뒤집기 등의 동작들로 진행되었다. 2주차 오후 수업은 아크로바틱&밸런싱으로 프랑스 아티스트 발리아 보뵈유(Valia Beauvieux) 강사가 아크로바틱 댄스와 움직임을 지도하였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10월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남부 지방의 소도시인 오슈(Auch)시에서 매년 진행되는 유럽의 대표적인 서커스 축제인 시르카(CIRCA) 공연 관람 및 해외 서커스 예술가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에서 3주간 서커스 워크숍을 참여하는 일정

으로 총 4주간 진행되었다.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1주차는 비텍 노보틴스키(Witek Nowotynski) 강사의 아크로바트&밸런싱과 핸드 투 핸드 수업, 2주차에는 다비드 수비(David Soubies) 강사의 차이니스 폴, 아크로바트, 서커스 예술구성 수업, 3주차에는 이자벨 브리세(Isabelle Brisset) 강사의 타이트 와이어 수업과 M-J. Sony 트렘폴린 수업, 다비드 수비의 서커스 예술구성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배웠던 종목들로 대부분 진행이 되었고 새로 배우는 종목들은 서커스 예술구성과 트렘폴린 수업이었다. 서커스 예술구성은 즉흥 위주의 수업으로 서커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배웠다. 다비드 수비 강사는 마샬아츠와 무술 쪽에서 온 카포에라 움직임과 바닥을 이용한 아크로바틱 움직임과 댄스 위주로 가르쳤다. 트렘폴린은 일주일 동안 한 시간씩만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점프, 앉기, 배치기, 등치기 등 정도의 기본적인 기술만 익힐 수 있었다. 모든 교육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수강생들은 12월 5일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과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II. '워너비 점핑업':국내 교육 프로그램

'점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시도된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서커스를 처음 접하는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은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분야의 서커스 장르를 경험해보자는 것이었다면,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난 후의 참가자들의 목표와 실력은 향상되어져 있었다.

1. 점핑업을 위한 목표설정

서커스를 처음으로 접한 참가자들은 지원했을 당시에는 새로운 장르인 서커스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이 변화되고 기술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지원할 때 목표는 그냥 서커스 장르를 경험해 보자였어요. 국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부터는 서커스 예술 발전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서커스라는 장르를 내가 하고 있는 무용과 연극 장르에 어떻게 접목해서 공연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서커스를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GER)

국내과정을 통해 밸런스를 잡고 몸을 다지면서 제 몸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GMJ)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커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자신들의 분야와 서커스를 융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2. 점핑업의 핵심은 기본

6주간의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좋았던 점으로는 기본을 중요시하며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과 자신들의 움직임 영역이 확장되어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랑 심화과정임에도 저희는 굉장히 베이직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기초과정도 그렇고 심화과정에서도 항상 기본을 중요시하고 기본을 놓치지 않고 갔던 게 좋았던 거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식을 찾게 되었고 움직임의 확장을 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GMJ)

서커스를 처음 접한 참가자들에게는 이번 국내 프로그램이 기초를 탄탄히 잡아주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커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 움직임의 범위와 영역을 폭넓게 할 수 있었다.

3. 워너비 점핑업의 갈증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국내프로그램에 만족했지만 연습공간과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에 갈증을 느꼈다. 수업과 정해진 연습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간 사용의 제한으로 참가자들은 습득한 기술을 더 복습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타이트 와이어나 차이니스폴 같은 경우 도구 설치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공간이 좀 오픈이 되면.. 수업은 받을 수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어서..특히 도구가 없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 환경이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GSW)

연습을 안 하면 배웠던 것도 잊어먹고 감각적인 것도 잃기 때문에 연습공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GMJ)

이처럼 참가자들은 연습을 하고 싶을 때 공간과 시설이 준비되어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이들은 프로그램 일정에 관해서 한 종목만 하루에 6시간씩 진행 되다 보니 집중력의 한계를 느끼고 처음 배웠던 기술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잊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한 가지 장르만 일주일 동안 계속 배우니깐 하루에 두 가지 기술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장기간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이트 와이어 같은 경우 첫 2주 동안 배우고 그 이후에는 안 하니깐 백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GER)

수업 후반에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분반을 하고 시간을 나눠서 2시간은 타이트 와이어, 2시간은 다른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 꺼 같아요. (GSW)

이러한 갈증으로 인해 향후에는 종목들을 분반하여 진행하자는 방향의 의견들이 나왔다.

III. '점핑 인 프랑스' : 해외 교육 프로그램

1. 프랑스는 서커스 세상

해외에서의 경험은 실제 서커스가 활성화 되어있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보다 폭넓은 경험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서커스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철저한 안전관리와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탁월한 강사진들의 오픈 마인드와 섬세한 가르침,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서커스에 대한 정신적 마인드를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로 꼽았다.

해외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커스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오면서는 서커스를 생각하지만 가면서는 현업에 대한 생각을 해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모든 환경 자체가 서커스니깐 좋았어요. (GSW)

해외와 국내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된 프로그램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더 폭넓게 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GER)

위와 같이 서커스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참가자들의 배움의 폭을 넓혀주었고 서커스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서커스는 안전과 직결된 장르이기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국내 프로그램 진행 시에도 강사들과 진행 측에서 안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을 느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커스 공연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통해 안전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더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경험했다. 이러한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 아래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점이 국내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커스 자체를 한다는 게 안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전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수많은 매트와 안전장치들. 좋은 환경이 정말 부러웠어요. (GER)

이처럼 참가자들은 국내에도 서커스를 하기에 안전과 시설 및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프랑스 서커스예술학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이고 세분화된 수업방식을 배우고 체득한 기술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기예보다는 가치관 중심과 서커스를 하는 이유에 초점을 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서커스에 대한 마인드나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 새로움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현지에서 서커스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라 쓸데없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와 비슷했지만 강사들이 개인적으로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자체가 체계적이고 디테일해서 결국에는 단어 하나 하나를 문장으로 만들게 해줬어요. 강사들이 기술보다는 가치관에 중점을 둬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서커스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GER)

해외에서 똑같은 기초를 배워도 체계적으로 배우니깐 매일 실력이 향상되는 게 느꼈어요. 수업 방식 중 비텍 강사의 핸드 투 핸드가 기억이 남아요. 예를 들어 파트너를 무릎 위에 올린다까지의 과정을 몸풀기부터 쫙 연결 하더라고요. 처음에 손잡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GSW)

프랑스 선생님들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정이고 자기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움직이면서 이유를 찾고 스스로 하는 예술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GMJ)

이렇듯 해외의 체계적이고 세분화 된 시스템과 서커스에 대한 마인드는 참가자들에게 서커스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참가자들은 해외 강사진들의 열린 가치관, 열정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섬세한 관심과 탁월함으로 인해 매우 만족하고 역시 다르구나 하는 특별함을 느꼈다.

강사들이 개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을 빨리 파악하고 한 명씩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어요. 내 자신을 오픈시켜주는 그들의 수업방식과 가치관이 좋았어요. (GER)

탁월한 해외 강사진들 티칭 방법과 수업 중에서도 참가자들이 선택한 가장 좋았던 수업은 다비드 강사의 서커스 예술 구성 수업이었다. 그 이유는 그의 인상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구성적인 측면과 움직임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비드 강사가 앞으로 서커스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일 많이 세워줬어요. 먼저 기예를 익히고 그걸 문장으로 구성하고 단락이 되게끔 해줬어요. 오전 수업인 아크로바틱에서는 정형화되고 절제된 움직임, 오후 수업인 서커스 예술구성 수업에서는 다 풀어버리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을 하니깐 절제됨과 자유로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GSW)

다비드 강사 예술구성 수업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즉흥을 매일 시키면서 움직임에 대한 이유를 찾고 즉흥이지만 어느 정도 전체 움직임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막상 움직였는데 생각한 거랑 다르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어요. (GMJ)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모든 참가자들은 국내 프로그램에 적용했으면 하는 수업으로 다비드 강사의 서커스 예술구성 수업을 적극 추천했다.

2. 자꾸 생각나는 서커스 세상

위에 언급된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로 인하여 참가자들은 다시 해외연수를 가고 싶다는 동일한 의견을 내놓았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거 같아요. 한국에서 영상만 보는 거랑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고 싶어요. (GMJ)

저한테 좋은 기회였고 개인적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기술도 많이 배웠지만 내가 왜 서커스를 하고 있고 서커스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장르와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것이 앞으로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줄 꺼 같아요 (GER)

최적의 해외 서커스 환경과 시스템을 통해 많은 발전을 한 참가자들은 기회가 된다면 해외연수를 다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IV. 점핑업 넥스트

6개월간 서커스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삶에 서커스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자신들이 속한 분야와 서커스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여자들 자신과 국내 서커스가 점핑업 넥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 고민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국내 서커스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1. 서커스가 스며있는 삶

참가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매일 서커스를 하면서 서커스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었다. 삶 속에 활력을 주는 서커스를 통해 자신들만의 목적이 생겨나고 타인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때까지 연기, 무용 등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서커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 같고 서커스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서커스가 스며있는 공연을 꼭 하고 싶어요. (GER)

현재 뮤지컬 레슨을 하고 있는데 서커스 훈련법을 많이 적용하거든요. 핸드 투 핸드도 시키고. 다들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분명히 소설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더 해보고 싶어요. (GSW)

이처럼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참여자들의 삶에 서커스가 스며들어가 서커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모두의 고민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것이었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긴 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의 부재가 현실적인 문제로 놓여있다.

이제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이어 나갈지가 많이 고민이 되요.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없는 부분이 아쉬워요. (GER)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처음 시작한 서커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점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참여자들의 현재의 고민도 고려하여 향후 프로그램 진행 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며 이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은 수렴하여 향후에 적용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2. 국내 서커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참여자들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커스 분야에 지원사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서커스 프로그램을 통해 서커스 전문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하여 국내 최고 서커스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서울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교육단체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서커스 전문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단은 새로운 시대의 서커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서커스를 새로운 공연 장르로 바라보고 예전의 기술 위주의 서커스가 아닌 하나의 서커스 아트로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요즘 시대의 융합예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최고의 공연이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GER)

이처럼 참여자들은 서울문화재단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커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장르의 서커스로 거듭나는 것에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서커스 교육사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에 서울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시도한 국내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서커스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처음 시도된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접한 참가자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국내 프로그램과 해외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는 환경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해외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너비 점핑업' 국내 프로그램을 접한 참가자들은 점

핑업을 위한 목표설정, 점핑업의 핵심은 기본, 그리고 워너비 점핑업의 갈증을 경험하였다. 연구자들은 처음 교육을 받기 전에는 막연한 새로운 배움의 기대감으로 가득했다면 국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난 후에는 서커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도 발견하고 자신의 분야에 서커스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 습득하여 움직임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참가자들의 갈증으로 나타난 부분은 수업 이외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과 수업 진행 방식 관련 부분이었다. 국내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수업 이외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마련과 수업을 분반하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점핑 인 프랑스' 해외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서커스 세상인 프랑스를 경험하고 난 후 자꾸 생각나는 서커스 세상으로 표현하며 다시 가고 싶은 열정을 나타냈다. 서커스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철저한 안전관리와 준비된 공간 및 시설, 체계적인 시스템과 탁월한 강사진들의 섬세한 가르침으로 인해 이들은 서커스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과 서커스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점핑업 넥스트'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커스를 접하며 자신들의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며 서울문화재단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커스 교육을 지원하여 국내 서커스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전반적으로 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창작 영역 다양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연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확보되어있지 않아 이제까지 배운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 앞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국내 서커스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대중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관련하여 앞으로 국내 서커스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중들의 관심을 통해 활발한 서커스 교육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서커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도 필요하다. 최근 서울문화재단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서커스를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된 '서커스 예술놀이터', 스웨덴의 컨템포러리 서커스 예술단체인 시르쾨르 초청으로 진행된 '서울미적체험워크숍' 등이 있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13]. 우리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서커스 예술 놀이터' 같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서커스를 일상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진행되어졌던 프로그램의 리뷰를 통해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 진행하는 서커스 지원 프로젝트 같은 지원 사업이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활성화되어 국내 서커스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서커스를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내 강사들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통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의 강사들처럼 탁월한 실력으로 학생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 서커스 교육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해외에서 강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초빙할 때마다 그들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연구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과 또한 해외서커스 센터 및 학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게 잘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커스 전문가 프로그램의 수료자들 중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커스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지도자들로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커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진행되었던 것처럼 기초 중심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현재 서커스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들은 국내에서 전문적인 서커스 수업의 부재로 해외로 배우러 간다거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스스로 익혀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는 커리큘럼 또한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해외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도입이 절실하며 국내에서 교육여건이 열린다면 서커스 교육과 공연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해외의 서커스가 발전해온 과정과 현재의 해외 서커스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은 서울문화재단 축제지원팀의 JDH 팀장이 "서커스의 요소가 다분히 녹아있는 전통연희 등 우리에게 내재된 기예에 대한 연구와 비보이, 마샬아츠 같은 특화된 형식도 한국형 서커스의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 말한 거처럼, 해외 서커스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한국적인 서커스 요소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듯 비교 연구를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는 서커스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http://mlib.nsu.ac.kr

[2] http://blog.naver.com/i_sfac/220379575262

[3] http://www.cnac.fr

[4] http://blog.naver.com/i_sfac/220353766764

[5] 심영임,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무용의 예술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정의숙, 변혁, "춤 영역 확장을 위한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컨텐츠 구성요소 분석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46권, 제1호, p117-133, 2014.

[7] 전성찬, *태양의 서커스 블루오션전략*,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 김영아, "가치혁신으로 본 태양의 서커스와 우리나라 서커스의 향후 과제," 비교문학, 제55권, pp.325-343, 2011.

[9] 김병영, 정소희, 김영호,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의 가족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5권, 제2호, pp.95-126, 2011.

[10] 최민지, *태양서커스(Cirque du Soleil) 공연에 나타난 창작요소의 혁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6-137, 2007.

[11] 심영임,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무용의 예술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4, 2011.

[12] http://terms.naver.com/

[13] http://sfac.or.kr

저 자 소 개

전 아 람(Aram Jun) 정회원

▪ 현재 : 세종대학교 석, 박사 통합과정 수료

<관심분야> : 서커스, 서커스 전문가 프로그램

김 형 남(Hyung Nam Kim) 정회원

▪ 현재 :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서커스, 서커스 전문가 프로그램

정 연 수(Yeun Soo Chung) 정회원

▪ 현재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무용 교육) 박사 졸업

<관심분야> : 서커스, 무용, 창의적인 움직임, 교육프로그램